

경북도, '소버린 AI 기본계획' 수립... 73개 과제 1.7조 투입

도정·산업 전반 AX 본격 추진
민간협력형 데이터센터 구축
"대한민국 AI 선도거점 도약"



경북도청

경북도가 '소버린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과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AI)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정부가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해 발표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데이터 활용 확대, 컴퓨팅 기반 구축, 자체 인공지능 모델 개발, 산업 현장 적용, 인재·기업 육성 등의 산업 현장 적용과 확산을 담당하는 핵심거점 역할을 경북도가 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 소버린 AI 기본계획'은 ▲AI 거버넌스 운영 ▲AI 혁신 기반 조성 ▲인공지능 대전환(AI) 추진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민간 협력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전주기 AI 융합 인재 양성 체계 마련 등 73개로 돼 있다.

도는 먼저 '인공지능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4차산업혁명 실행위원회'에 인공지능 분과를 신설하고 산학연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인공지능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선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에 특화된 소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 역량강화, AI 부트캠프, AI 융합대학원·재직자 대상 현장 문제 해결형 직무교육 등으로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도 만든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고, 지역 수요기업과 협업체 기술의 실증과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제조·농업·해양수산·바이오·에너지·재난안

전·복지·소상공인·공공행정 등 10대 분야 도정 전 영역에 AI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과 품질,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위해 선 국민 누구나 생성형 AI를 직접 배우고 써볼 수 있는 AI 라운지 운영, 아태 AI센터 유치, APEC회원국 간 상호 신뢰 기반 데이터 연계 AI공동연구·실증, AX 실현, 인재양성 및 교류 등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번 계획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더해 AI데이터센터 건립 등 민간 자원을 별도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4대 전략 73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맞춤형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AI 혁신 선도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거제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2개 선정

거제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 사업 2개에 잇달아 선정되며 취약노동자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과 '취약노동자 알터 개선 지원사업'으로, 경남에서 두 공모 사업에 동시 선정된 곳은 거제시가 유일하다.

시는 하청노동자 체계 지원을 위한 '하청노동자 지원 5개년(2026~2030)계획'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이 해당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제(경남)=손병호 기자

김해시

21일 '김해댕댕파크' 시범 운영

김해시가 반려동물 테마공원 '김해댕댕파크'의 정식 개장에 앞서 이달 21일부터 25일 까지 5일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총사업비 52억원을 들여 1만 5412㎡ 규모로 조성된 김해댕댕파크는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주차장, 관리 시설, 휴게 공간 등을 갖춘 복합 공원이다.

시범 운영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 통해 운영 방식과 시설 관리를 보완한 뒤 4월 3일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울산시, 초고순도 PM 생산공장 유치

케이앤제이피엠 투자양해각서 체결
내년 5월 준공... 울산시민 우선 고용



김두겸 울산시장과 서성준 케이앤제이피엠 대표이사가 '초고순도 PM 생산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울산시

울산시의 케이앤제이피엠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초고순도 PM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17일 울산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서성준 케이앤제이피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약에 따라 케이앤제이피엠은 총 550억원을 투입해 울산 온산국가 산업단지 내 7038㎡ 부지에 연간 2만톤 규모의 초고순도 PM 생산 공장을 짓는다. 이 공장은 PM 원재료 반응부터 정제까지 전 공정을 내재화하는 국내 최초의 생산 시설로, 반도체 소재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 착공해 내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소재의 국산화 투자를 결정한 케이앤제이피엠을 환영한다"며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경주시, 상·하수도 분야 국비사업 적극 추진

하수관거 정비 등 도시 인프라 개선
경주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분야 국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도시 기반 인프라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4689억 원 규모의 상·하수도 국비사업 30건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시기별로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건, 1781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됐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22건, 2908억 원 규모의 사업이 확보돼 추진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분야 11건, 2,313억 원, 하수도 분야 19건, 2,376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정수장 정비와 관망 현대화, 하수처리장 증

설, 하수관거 정비 등이 포함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기반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주시는 상·하수도 사업의 재원 구조를 국비 중심으로 전환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하수도 시설 건설과 자재 공급, 관련 인력 투입 등이 이어지면서 지역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상·하수도는 시민 생활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관 기자 jinjon@

서부산권 4개구,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

사상구 등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선정

낙동강을 공유하는 부산 서부산권 4개 구가 AI·디지털 기반 평생학습 협력 체계 구성에 나선다.

사상구는 교육부의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사상·북·사하·강서구 4개 구가 공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평생학습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다.

이번 사업 핵심은 그간 각 구청이 따로 운영해 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서부산권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4개 구

를 관통하는 낙동강을 공동 학습 콘텐츠의 소재로 삼아 지역의 생태·문화 자산을 교육과 연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AI 생태 해설사 양성 과정', '낙동강 디지털 학습 스탬프 투어', '지역 명소 디지털 컬러링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등이 편성됐다.

4개 구는 공동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공유 체계를 통해 학습 결과물을 지역 축제와 문화 콘텐츠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서부산권 평생학습 브랜드 정착을 목표로 삼고 있다.

/부산=이도석 기자 metrobusan@

통영시, 공모사업 53건 선정... 1.2조 확보

시민 1인당 약 1034만원 수혜

통영시가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끌어냈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53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조 20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 공모 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수치로, 2026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인 3680억원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시민 1인당 수혜액으로 환산하면 약 1034만원으로, 경남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성과의 중심에는 국내 최초로 선정된 1조 1400억원 규모의 '복합해안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있다. 도산권과 도남권을 잇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올해 초 '2026 K-브랜드 어워즈'

를 수상하기도 했다.

대형 국책 사업 외에도 CLEAN 국가 어항 조성사업, 여촌신활력증진사업, 명정지구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사업 등 구도심·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스마트 빌리지 보급·확산사업,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공모 사업 등 청년·문화 인프라 사업도 함께 확보해 균형 있는 사업 구성을 이뤘다는 평가다.

통영시 관계자는 "국·도비 확보는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확보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삼광원테크 '리쇼어링' 추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7일 경산시청에서 정밀 플라스틱 사출 전문기업인 (주)삼광원테크의 국내복귀 투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주)삼광원테크가 글로벌 스마트폰 산업 공급을 위해 진출했던 중국 광둥성 동관 법인을 철수하고, 국내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경산지식산업지구로 돌아오는 '리쇼어링(국내복귀)' 사례다.

DGFEZ는 이번 투자가 경산지구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한중 경제·무역분야 협력 모색

진일표(陳日彪, 陳日彪) 주부산중국총영사가 1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을 찾아 양측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진일표 총영사와 중국 측 관계자들, 원소빈 중국 공상은행(ICBC) 부산지점장이 함께했다.

면담을 통해 한중 경제·무역 분야의 실무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2026년 중국 투자 유치 설명회'의 개최 방향과 APEC 관련 경제 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부산=이도석 기자